

# “내생의 일 알려하는가 자작작수만 있을 뿐이다”

1면에서 계속

산문 좌우에 쓰인 육조도량(六祖道場), 칠조도량(七祖道場)이란 글씨가 복암사의 역사성을 한 마디로 설명해주고 있다. 육조 혜능 대사의 법이 남악회양으로 이어진 도량이 복암사다. 회양의 제자 마조에서 태동한 마조선(馬祖禪)이 백장에서 황벽으로 흘러가 임제가 임제종을 이루고, 백장에서 위산으로 흘러가 양산이 위양종을 이루게 된 것이다.

복암사는 가람들이 산문, 지척청, 악신전(岳神殿), 대웅보전, 조당(祖堂) 순서로 배열돼 있다. 악신전에는 남악신인 남악성제(南嶽聖帝)가 봉안되어 있는데, 우리가 치자면 산신각의 의미를 띠고 있다. 악신전이 우리나라 산신각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크고 대웅보전 바로 앞에 자리한 것으로 보아 부처님과 남악신이 호형호제하며 동거하고 있는 느낌이다.

마침 복암사 대중스님들이 대웅보전에서 저녁예불을 시작하고 있다. 상호가 우리나라 부처님과 흡사한 님은 삼존불이다. 가운데가 석가모니불이고 좌측이 아미타불, 우측이 약사불이다. 순례자 일행은 중국스님과 사전에 약속하지 않았으므로 예불에 동참하지 못하고 법당 밖에서 합장만 하고 조당으로 향한다.

조당 안에는 복암사에 주석했던 역대 조사들의 위패가 세워져 있다. 여섯 위패 위에는 개산조사(開山祖師)인 혜사(慧思)와 개법조사(開法祖師)인 회양의 영정이 걸려 있다. 최근에 그려진 영정 같은 데 회양의 자비롭고 온화한 성품과 웬지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위로 올라간 눈썹과 날카로운 콧날이 강골의 장수 같다. 정수리가 튀어나온 혜사는 천태종 개조인 천태지의 대사의 스승이기도 하다.

그런데 내가 복암사 조당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까닭은 혜사의 제자가 된 백제 위덕왕 때의 선승 현광의 자취 때문이다. 현광의 영정이 <송고승전>에 남악혜사 영당의 28분 가운데 한 분으로, 또한 국경사 조사당에도 현광의 영정이 모셔져 있는데, 지금 참배하고 있는 복암사 조당에는 없다. 혜사선사가 입적하기 10년 전에 진(陣)나라 광대(光大) 원년(667)에 남악으로 와 남악 최초의 절인 반야사(현 복암사)를 창건하고, 이후 백제승 현광을 맞이했으므로 남악혜사 조사의 영당이라면 당연히 복암사 조당을 가리킬 텐데, 현재의 조당에는 현광의 영정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훗날의 마조도 없고, 신라의 본여나 현승도 없지만.

내가 현광 선사의 행장을 처음으로 읽었던 책은 이능화가 편찬한 <조선불교통사>였다. <송고승전> 권18 감통편(感通篇)은 현광의 득법과 감통, 그리고 백제에서의 교화 얘기를 다음과 같이 전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현광 스님은 해동의 용주(熊州, 공주) 사람이다. 어려서부터 영리하였는데, 문득 세상에 염증을 느껴 유명한 스님을 찾아가 오로지 범행(梵行)을 닦았다. 성장하여서는 바다를 건너 중국에 들어가 선법(禪法)을 구하고자 했다.

이에 진(陣)나라를 두루 살펴보고 형산에 가서 혜사 대화상을 찾아뵈었다. 두 사람이 만나자 만물이 열리고 변화가 이루어져 신해(神解)가 참구되니, 혜사대사가 그 이유를 살펴보고 은밀히 법화안락행문(法華安樂行門)을 주었다.

현광은 예리하기가 신(神)의 송곳과 같아서 아무리 견고해도 다 물리치며, 새롭기가 마치 영겁과 같아 어떠한 더러움도 다 녹였다. 본받아 행하고 부지런히 쉬지 않으니, 문득 법화삼매(法華三昧)를

증득하고 인가를 청하였다. 혜사가 증명하여 말하기를 ‘그대가 증득한 바는 진실하여 결코 헛됨이 없다. 마음에 간직하여 법을 증장시키도록 하라. 그리고 본국에 돌아가거든 좋은 방안을 베풀어 교화하라’고 하였다. 현광이 예를 올리고 눈물을 흘렸다.

이후 강남에 머물다가, 본국으로 가는 배를 타고 해안을 떠나려 할 때 구름이 덮이고 해가 혼란스러웠다. 아름다운 소리가 공중에 퍼지더니 그곳에서 이르기를, ‘천제(天帝)가 해동의 선사를 부르는데’고 하였다. 현광이 합장하고 사양하였으나, 푸른 옷을 입은 이가 앞을 인도하였다. 얼마 있다가 궁으로 들어갔다. 거기는 인간 세계가 아니었으며 관청의 고방(庫房)과 시위하는 것들이 모두 새로웠고 또한 온갖 귀신을 참례하였다. 또 이르기를 ‘오늘 천제가 용왕의 궁에 내려왔으니, 천군대 스님은 친히 증득한 법을 설하여 주십시오. 우리 수부(水部)들도 대사에게 이로우심을 입고자 합니다’라고 하였다. 현광이 보전(寶殿)에 올라가 차례로 높은 대를 밟고 물음에 답하고 담론하기를 대략 7일이 지난 연후에, 왕이 친히 송별하려고 배를 띄웠으나 나아가지 못하였다. 현광이 다시 배에 오르니, 뱃사람이 한 나절을 지났을 뿐이라고 말하였다. 현광이 용산(翁山; 계룡산)으로 돌아와 띠포로 당을 지었는데, 이에 범찰(梵刹)이 이루어진바 때마침이 서로 호응하는 것과 같았다. 법을 얻은 자는 집거하던 문을 열고, 소송을 즐기던 자는 마음을 돌이켰다. 흠모하는 자들이 개미처럼 연이어 재빠르게 도달했는데, 그 당에 올라가 기별(記別)을 받은 이가 1인, 화광삼매(火光三昧)에 든 이가 1인, 수광삼매(水光三昧)에 든 이가 2인이었다. 서로 이종(二種)의 법을 좇아 얻어서 삼매의 명칭을 빛냈다. 그 나머지 문생들은 비유하자면 수많은 새가 수미산에 깃든 것처럼 다 한 가지 색이었다.

현광은 말년에 입멸하였으니 왕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악혜사의 영당 안에는 28명이 봉안되어 있다. 그중에 현광이 있고, 또한 천태산 국경사 조사당에도 현광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

<송고승전>은 현광 선사가 백제로 귀국하려고 할 때의 신통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행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백제 사신들이 배를 타려고 할 때 현광 선사의 역할이 상징적이고 격조 있게 드러나는 것 같아 흥미롭다. 그 무렵 대다수의 구법승들이 그랬던 것처럼 현광 선사도 무사할해(無事할해)를 주관했던 것이다.

날씨가 좋지 않아 배가 해안에 정박해 있는 동안, 백제 사신들을 전송하기 위해 행차한 황제의 청으로 현광선사가 배에서 범문을 강설(講說)하려 했다. 황제가 머무는 배는 용왕이 사는 용궁처럼 화려하고 새롭게 꾸며지고, 7일 동안 황제와 용왕, 그리고 수부들을 위해 범문을 하고 나니 때마침 바다가 잠잠해졌다는 내용을 감통의 얘기로 환치시키기도 하는 것이다.

이윽고 복암사를 나와 혜사 선사의 삼생담(三生塔)이 있는 곳으로 순례자 일행은 이동한다. 마조대에서 좋은 기운을 받아서인지 제법 산행을 했는데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은 없다. 비구름은 축융봉 정상으로 올라가버리고 형산이 비로소 진경을 드러낸다. 순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감탄사를 쏟아낸다. 혜사 선사도 형산의 비경에 반하여 삼생을 윤회하면서까지 이곳에서 살았던 것일까. 복암사 구전이지만 삼생담에 혜사의 해골이 묻혀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시작한다. 어느 날 혜사가 제자들에게 말했다.

“전생에도 나는 이곳 반야사에서 제자들을 가르쳤지. 내가 이곳 반야사로 온 까닭은 전생이 그리워서 온 것이야.”



복암사 조당에 봉안된 남악혜사 영정(왼쪽)과 남악회양 영정(오른쪽).

혜사는 제자들을 형산의 경치 가운데 가장 빼어난 곳으로 데리고 가더니 다시 말했다.

“이곳이 내가 전생에 공부했던 터다. 지금은 아무 흔적도 없지만 내가 토굴을 짓고 공부했던 곳이지. 이곳을 파보면 알 것이다.” 과연 혜사가 시키는 대로 제자들이 땅을 파보니 기왓장 파편들이 나왔다. 혜사는 놀란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큰 바위에 이르러 말했다.

“토굴을 짓고 공부하기 전, 전생에는 이 바위에서 공부했지. 그런데 공부하다 죽어 시체가 바위 밑으로 굴러 떨어져 땅에 묻히게 됐다. 파보면 내 뼈가 나올 것이다.”

역시 제자들이 땅을 파보니 해골이 나왔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바위를 삼생석(三生石)이라고 불렀다. 스승의 금생이 반야사 주석이라던 전생은 토굴 터 정진이고, 또 그 전생은 바위에서 공부했기 때문이었다. 훗날 문도들은 깨진 혜사의 영겁불망(永劫不忘)을 잊지 않기 위해 해골이 나온 그 자리에 삼생담을 세웠다. 선문의 조사들도 ‘활구 아래서 깨치면 영원토록 잊지 않는다(活句下薦得永劫不忘)’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혜사는 당나라 때에 이르러 원관(圓觀) 스님이 된다. 원관이 12살 때 이월(李淵)거사를 만났을 때 스승을 타고 자신의 전생을 기억하며 불렀다는 노래가 <당서(唐書)>에 기록되어 있다.

삼생석 위의 옛 주인이며 달구경 풍월을 말하지 말라 부끄럽다. 정든 사람이 먼 곳에서 찾아오니 전생 내생 일이 아득하여 알 수 없는데 인연을 말하려고 하니 창자가 끊어지려 한다 오히려 월나라 산전은 이미 다 보고 도리어 배를 돌려 구당으로 간다. 三生石上舊情濃 賞月吟風莫要論 慙愧情人遠相訪 此身雖異性長存 身前身後事茫茫 欲話因緣恐斷腸 吳越山川尋已遍 却還煙棹上瞿塘

이 시의 첫 구절 ‘삼생석 위의 옛 주인’이란 혜사 선사이고, 원

글 정찬주, 사진 유동영

“ 마침 복암사 대중스님들이 대웅보전에서 저녁예불을 시작하고 있다. 상호가 우리나라 부처님과 흡사한 삼존불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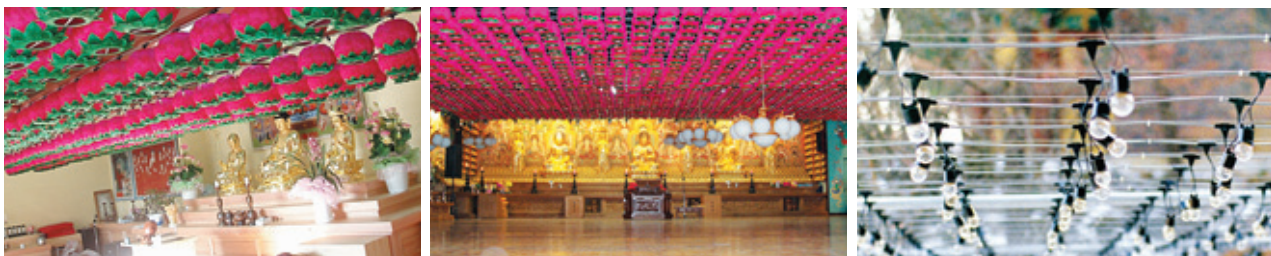
관은 그 인연을 말하고자 하는데 창자가 끊어지려 한다고 노래한 것이다. 혜사의 삼생담에 이르니 실제로 혜사선사의 삼생 얘기처럼 세 개의 묘탑이 조성돼 있다. 전생의 모든 일을 뚜렷하게 기억하는 영겁불망(永劫不忘)의 경지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놀랍기만 하다.

삼생담을 천천히 돌면서 내가 좋아하는 <법화경>의 한 구절을 읊조려본다. 부처님께서는 ‘전생의 일을 알고자 하는가. 금생에 받는 그것이다. 내생의 일을 알고자 하는가. 금생에 하는 그것이 다(欲知前生事 今生受者是 欲知來生事 今生作者是)’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오늘 내가 괴롭고 힘들어 하는 것은 전생에 지은 업이 있어 그런 것이니 금생에 그 업을 반드시 씻어내야 내생에는 편안해질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하다. 그러나 공부인은 금생이 바빠야 한다. 전생의 밀린 숙제도, 금생의 할 일도 마치고 나야 나를 힘들게 하는 걸림돌이 영원히 사라진다. 인과에는 공짜나 요행이라는 것이 없다. 스스로 짓고 받는 자작작수(自作自受)만 있을 뿐이다. 행복이란 절대로 그냥 굴러들어오지 않는 법이다.

(계속)

##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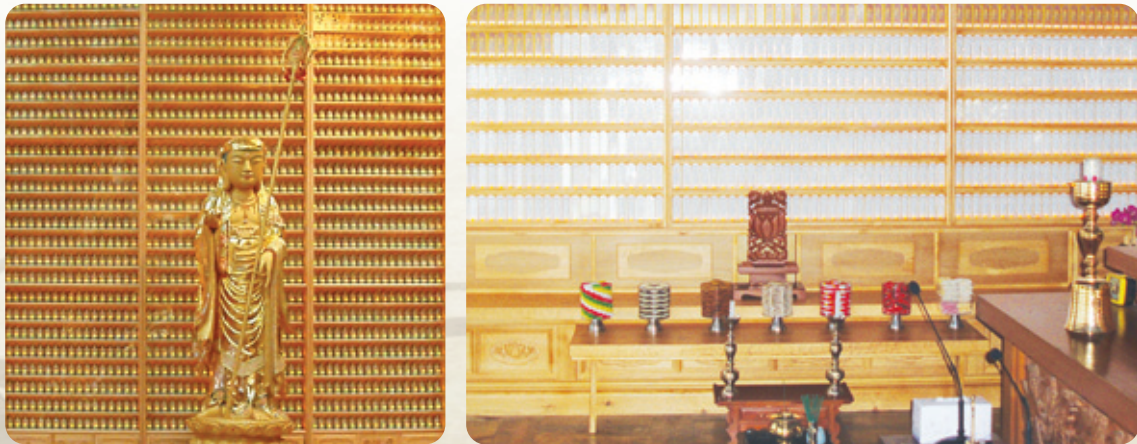
\* 이제는 방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여래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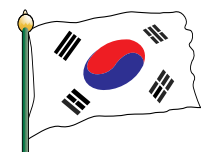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 찬덕불교가 개발한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시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동해 독도는 한국 땅’

# 아름다운 등

\* 주름등 · 종등 주문 받습니다. (사철명 인쇄)



##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번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 내열 ABS  
내열특성 : 연화점온도가 100-120 ℃로 우수한 내열특성을 가지고 있다. 연화점이란 (물질이 가열하여 변형되는 온도)  
충격특성 : 내열성과, 내충격성 등의 물성 밸런스가 우수하다.
- 경제성 비교

종 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로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 기존 전구에 비해 잘 깨지지 않는 재질의 커버적용으로 파손의 위험이 적다.
- 발열이 적어 기존 전구처럼 뜨겁거나 다칠 염려가 없습니다.
- 전기료가 절감 되고 교체하는 번거로움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 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